

# 국내증시 부진 흐름에도...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수익 '선방'

증권사 31개사, 3분기 수익 2.1兆  
전년비 0.71% ↓... '빚투' 확산 영향  
개인투자자, 레버리지 투자 활용 추세  
삼성전자 등 하락세 종목에도 몰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자수익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증권사 이미지.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의 3분기 누적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1% 이내 소폭 감소한 것에 그쳤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1개사의 3분기 누적 신용공여 이자 수익은 총 2조17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조1927억원) 대비 0.71% 감소한 수치다.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주식매매 등을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것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용자와 투자자가 예탁한 주

식, 채권, 펀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 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확산되면서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약세로 거래 금액이 감소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이자수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대부분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

을 올렸다. 이 기간 NH투자증권은 2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했으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2636억원, 3585억원으로 각각 3.2%, 2.51% 늘었다.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꼽힌다. 레버리지 투자는 특정 자산의 하루 변동률의 2~3배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방식으로, 낮은 수익률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7월에는 20조원대였으며,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17조원대를 유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150지수의 일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KODEX 코스닥

150레버리지를 378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씩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역시 2259억원 사들였다. 삼성전자 등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빚투'가 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용자 잔액은 1조731억원으로 연초(2616억원) 대비 310.21%(8115억원) 늘었으며, SK하이닉스의 신용용자 잔액도 3255억원으로 연초(1600억원) 대비 103.44%(1655억원)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엔비디아·테슬라 반등세... 투자심리 회복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주가, 이달 10.73% 올라  
반도체 종목도 꾸준히 순매수  
테슬라, 9899만달러 추격매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들이 올해 미국 증시 내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줄어들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도 회복됐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모두 주가 반등 기미가 시작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9일~25일)에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7803만달러(1091억원)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약 4개월간 엔비디아에 대한 순매도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순매수세로 전환된 뒤로는 다시 높은 선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개별 종목 외에도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그레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도 6612만달러(925억원) 사들였다.

하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함과 동시에 지난 20일(현지시간) 실적 발표가 예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심도 회복된 것으로 보여진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10.73% 증가했다.

다만 22일과 25일, 2거래일 동안은 3.22%, 4.18%씩 급락하면서 최근 3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350억8000만달러(약 5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4분기에도 375억만달러(약 52조원)의 매출액이 예상됐다.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6% 급증한 호실적이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에 오히려 실적 발표 후 약세를 보였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동사의 당분기 실적 및 다음 분기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으나 시장의 실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엔비디아는 지난 수년간 동사의 가이드نس 및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상회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서학개미들은 꾸준히 반도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 역시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다. 연초부터 지난 25일까지는 6억4697만달러(9047억원), 지난주에는 1억297만달러(1440억원) 사들이면서 압도적인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를 지난주에만 9899만달러(1384억원) 사들이며 추격매수에 이어갔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미국 대선 이후 급등세를 보여왔다. 서학개미들은 한 발 느리게 투자를 집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호재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졌던 18일부터 22일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9.92%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 채권 전문가 83% "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

금투협 '내달 채권시장지표'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12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준금리 동결 응답자 비율은 83%로 전달 조사(36%) 때보다 크게 상승했다.

나머지 17%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

으로 전망했다.

금투협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진입하면서 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줄어들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전망은 64%가 '보합'을 점쳐 가장 답변이 많았다. 하락할 것이라는 반응은 24%, 상승한다고 본 이들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달과 비교해 감소한데다 물가 및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하락 예상이 뒤

섞이면서 채권 금리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와 환율에 관한 채권시장 심리는 모두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응답자 비율은 전월 8%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30%였고, 응답자 3%는 물가 하락으로 답해 전월 19%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안정적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을 전망한 답변도 21%로 전달(4%)보다 많이 증가했고, 환율 하락을 내다본 이들은 31%로 전월의 45%보다 대폭 줄었다. /원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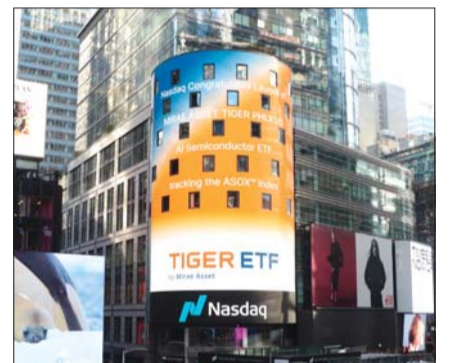
## 미래에셋운용, ASOX 지수 추종 ETF 선택

美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는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AI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한다. 반도체 설계, 장비, 파운드리, EDA 및 IP 분야의 AI 관련 기업을 포함하며, 특히 AI 가속기 관련 매출이 있는 팹리스 기업과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매출이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미국AI필라델피



현지시간 25일 미국 나스닥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신규 상장을 기념해 뉴욕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를 게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반도체지수(ASOX)'다. 이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3년 글로벌 대표 반도체 지수인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SOX)'를 선보인 이래 30여년만에 새롭게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지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선제적 회계감리로 한계기업 신속 퇴출"

금감원 "한계기업, 5년간 63.9% ↑"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이 50억원을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를 조작했다. 제조하지 않은 가공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냈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점이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신속 퇴출하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규모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한계기업들의 회계 위반 주요 사례로는 ▲가공의 매출 계상(매출 과대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영업이익·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재고자산 조작(재고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개발비 등 과대계상(무형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 고발당하거나 통보조치가 내려지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외부감사인에도 외부감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